

지역 매아리

부안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부안군 의회(의장 이한수)는 제28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부터 18일까지 5일 간에 걸쳐 부안군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는 소통하는 현장위주의 의정을 펼친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제8대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주요 사업장인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 ▲성천항 진입로 개설사업 ▲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실속사업 ▲부안 제2 농공단지 ▲수생정원 조성사업 등 부안군 행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27개소를 방문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부안 군의회는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이한수 의장은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

"위도 앞바다 계속적 관심 필요"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이 지난 11일 제28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위도 앞바다에 대한 한합재관소 관한 쟁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광수 의원은 먼저 위도 앞바다 갯벌 해역은 1,500년 전부터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이고 좁은 내륙 해상경계가 대부분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불합리하게 치우쳐 있었음에도 고창군과의 오랜 묵시적 합의를 참고 지켜온 부안 어민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과 분노를 강하게 언급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해 고창군의 즉각적인 갯벌 취하를 요구했다.

특히 김광수 의원은 그간 부서 간 협치 부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원활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최근 해당 갯벌 사건에 붙인 군민 관심의 시들지 않도록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판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안군이 이번 갯벌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부안군민과 어민 모두의 간절한 바깥과 걱정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 복분자주, 호주시장 인기예감'

시드니 현지마트·외식업체 첫 수출... 총 7000만원 상당

고창복분자주가 호주대륙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고창서해안복분자주(대표 송지훈)는 호주 시드니로 복분자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실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호주 시드니 현지마트 및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이며, 수출물량은 고창의 대표특산물인 복분자주와 블루베리 와인 2종으로 2만 병, 총 7000만원 상당이다.

고창서해안복분자주의 대표제품인 '선운'은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에 원적외선과 바이오 성분이 함유된 환토

토콜에서 발효시켜 빚어낸 술로, 2003년 대통령하사주, 2006년 APFC 공식만찬주로 등으로 사용되어 명성을 떨친 바 있으며, 블루베리 와인 또한 부드러운 맛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송지훈 대표는 "이번에 호주로 첫 수출되는 물량이 호주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고창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임을 집중홍보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고창농특산



물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국내 전통주 유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고창복분자주가 세계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최고의 고창 농특산물이 해외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진섭 시장, 농림축산부장관 면담 국비 지원 건의

유진섭 시장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지역 농축산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이개호 농림축산부장관을 비롯 실무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정읍 농촌의 성장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지역이 농축산 현안인 한돈 관련 악취와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다. 유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는 기반 조성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취와 분뇨 등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정읍을 한돈 시범특구 단지로 지정해 줄 것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이 사업은 단지 내에 일관된 처리가 가능해 악취와 환경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개호 장관을 만나 농촌의 현실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농업과 농촌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 촉구 '군민 청원서' 제출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회장 김원철)는 12일 군민 22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을 촉구하는 군민 청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이번 청원서에는 백산대회의 역사적 사실을 먼저 검증 후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라는 부안군민의 뜻을 담았다.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는 지난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기념일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올바른 법정기념일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법정기념일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과정에서 백산대회는 일자가 불분명하다는 일부 학자의 주장에 의해 실체가 부정되면서 지난 10여 년 간 철저히 소외돼 왔다"며 "법정기념일 선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려면 역사적 사실의 분명한 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안치식 성료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밝힐 성화가 지난 10일과 11일 동학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을 지났다.

성화는 성화봉송 3일째인 10일, 남원을 출발해 고창, 순창을 거쳐 정읍에 안치되었다.

이번 행사는 정읍역을 시작으로 정읍시청까지 4개구간으로 나눠 40여 명의 주자가 2km구간을 봉송했다. 특히 4구간(내장산약국~정읍시청) 특별봉송 구간에서는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전통준 장군과 농민군들의 행렬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전국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이날 행사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최낙삼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성화는 정읍시 탑국약단의 홍겨운 연주와 출사위의 식전공연으로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인계·안치 됐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기운과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우리 시민의 한뜻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제 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에서 하루를 안치한 성화는 11일 오전 9시 정읍시청 앞 특설무대를 출발하여 다음 성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밝힐 성화가 지난 10일과 11일 동학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을 지났다.

안치 지역인 김제시로 향한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정읍에서는 핸드볼, 씨름 등 일 반경기와 유도, 사이클 등 장애인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법적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법적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생활보장·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정읍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는 법령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4월~9월에 있었던 생활보장 소위원회 사후심의의 결사항 731건에 대한 보고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 25세대의 심의, 긴급지원대상자

정읍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활력 기대

'시민창안 300거리 기본디자인·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11일 '시민창안 300거리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시민창안 300거리란 시민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창안해 낸 이름으로 100년 이상 된 샘물시장, 시기성당, 우암로 등을 의미한다.

유진섭 시장의 주재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관련 전문가, 시의회 의원, 업무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해 시민창안 300거리에 대한 기본디자인과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에 국토교통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4억원(국비 32억, 시비 32억)을 투입하여 원도심 내 3개 거리(쌍화차거리, 새안길, 우암태평로)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예전에는 정읍의 도심에 대표되는 거리였으나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고 방문객 감소 등으로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기반시설과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거리의 활성화를 도모 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디자인 경관심의, 교통체계 개선 검토, 선진지 견학 등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하여 3개 거리 주민들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어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다양한 전문가와 사업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수렴하여 10월 중 기본디자인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 갈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3개 거리가 정읍시만의 특색을 살린 명품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이 사업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작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200여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과 금년에 선정된 42여 규모의 공기업체인형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684-9960
www.gangsanwine.com